



과학전문지 수집의 사연

과학저널리스트 玄源福씨의 書架



1929년생. 연희대 理學院, 컬럼비아대 신문대학원 수료. 서울신문 과학부장, 논설위원 등 역임. 현 한국 연구개발단지 공동대변인. 월간 「하이테크저널」 주간. 저서 「자연의 신비」 「과학자의 길」 「과학과 매스미디어」 「과학의 세기」 외 다수.

사진 · 임영균

내가 과학관련 전문지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20여년이 넘는다. 언론사 과학기자를 거쳐 자유기고가로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기간행물과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는 외국의 과학전문지와 과학대중지의 가지수는 어느새 20여종으로 늘어 나게 되었고 소장잡지권수도 대충 5000점을 넘어 섰다.

나처럼 저널리스트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세계 과학계의 뉴스를 고루 신속하게 전달하는 미국의 「Science」나 영국에서 발행하는 「Nature」 또는 「New Scientist」와 같은 주간종합과학전문지이다. 「Science」는 23년전 미국 컬럼비아대학 신문대학원시절 지도교수였던 존 포스터교수의 권유로 보기 시작한 이래 이제 1천2백점에 가까운 장서가 되어 나의 문필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뱅크구실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Science」발행처인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배달사고 등으로 책을 받아 보지 못한 경우 그 사연을 알리면 어김없이 다시 책을 붙여 준 덕에 거의 결본없이 소장하고 있다.

나의 소장잡지중에서도 가장 진귀한 전문지의 하나는 뉴욕과학아카데미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The Sciences」. 이 전문지는 글의 내용 뿐 아니라 장정에서 편집에 이르기까지 가위 세계최고수준이다. 특히 기사마다 유명화가의 그림을 곁들여 과학과 예술의 극치를 함께 맞출 수 있다. 이밖에도 주로 첨단기술과 관련된 단행본을 약 3백권 소장하고 있다.

과학잡지의 수준은 그 나라 과학기술저력의 표출이라고 볼 때 이제 5만을 넘는 과학연구인력을 보유하고 된 우리나라에서도 내세울 만한 종합과학전문지가 나올 때가 되었다고 기대를 걸어 본다. <玄源福>

